본 회

건설교통부장관 초청 설비건설업계 간담회 개최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박종학)는 지난 9월 1일 '라마다 르네상스 인 서울'에서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건교부 관계자들과 함께 설비건설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설비건설업계는 겸업제한 폐지를 원칙적으로 반대하나, 정부방침으로 겸업제한 폐지 시 설비공사 분리발주 활성화 및 전기공사처럼 제도화 보장, 개 · 보수공사에서 설비 · 전문간 공동도급 허용으로 설비건설업자의 원도급시장 참여 보장, 시공참여자제도의 존치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추병직 장관은 설비건설업자가 원도급으로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개정시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설비건설협회가 건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편집자 주]

〈참석자〉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박종학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
남인희 기반시설본부장	정승일 대한설비건설협회 명예회장
서종대 건설선진화본부장	강석대 대한설비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류영창 기술안전기획관	조기호 대한설비건설협회 부회장
손태락 건설경제팀장	최동호 대한설비건설협회 상임부회장
정삼정 건설지원팀장	최기원 대한설비건설협회 윤리위원
김석기 건설경제팀 사무관	김경회 대한설비건설협회 상임이사

본 회

□ 박종학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 인사말씀

바쁘신 국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설비건설업계를 위하여 특별히 시간을 내주신 장관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입법예고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우리 업계의 건의말씀을 드리기 앞서 장관님께 고맙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요즈음 우리 설비를 포함한 전문건설업계에서는 국민연금 · 건강보험등 4대 사회보험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너무도 큰 당면과제 입니다.

그동안 우리협회에서 각계요로에 수차례 탄원하였으며, 특히 지난달 장관님을 모신 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재삼 장관님께 보험료 확보방안을 건의한 바,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4대 보험료 원가반영과 정산제도 도입을 포함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지난 8월 16일 정부에서 발표한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방안은 보험료 납부에 따른 업계 행정력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 반드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설비건설업계에서는 장관님을 모시고 우리업계의 어려움과 숙원사업을 직접 말씀드리게 되어 큰 기쁨과 함께 많은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설분야 전체를 아우르고 발전방향을 모색하시는 장관님께서는 너무 일방적인 요구만 한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설비업계는 그동안 급 · 배수설비 위주였던 60년대 시절에서 지금은 건축물에서 설비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정도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저가하도급으로 설비의 기술발전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품질이나마 얻을 수 있을지 암담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와중에 일반 · 전문 겸업제한을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면서 저희 설비업계는 또 한번의 좌절감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저희 설비건설업계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께서 장관님께 저희업계의 어려움을 직접 말씀드리고 또한 몇가지 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설비건설업계에 대한 장관님의 따뜻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설비건설업계 건의 내용

박종학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

일반 · 전문간의 겸업제한 폐지는 발주자의 선택권을 다양화할 수 있는 발주방식 개선과 함께 시행

▶ 박종학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은 겸업제한 폐지 시 발주자의 선택권을 다양화할 수 있는 발주방식 개선과 함께 시행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지난 30여년 간 겸업을 제한해 왔던 것은 형평을 맞추기 위해 제한해 왔던 것이지 다른 의미의 규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요즘 모든 업종이 양극화가 심하다고 하지만 건설업이 가장 양극화가 심한 업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지난 IMF 때 지금 우리나라에서 1,2위 하는 대표 건설사들이 도산됐습니다. 많게는

본 회

▶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앞줄 좌로부터 박종학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 추병직 건교부장관, 남인희 기반시설본부장, 서종대 건설선진화본부장, 위쪽 좌로부터 손태락 건설경제팀장, 최동호 상임부회장, 강석대 서울특별시회 회장, 정승일 명예회장, 류영창 기술안전기획관, 조기호 부회장, 정삼정 건설지원팀장, 최기원 윤리위원, 김경회 상임이사)

수천억에서 수조원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채를 지고 도산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대부분 원상회복을 했습니다.

그 때 도급순위 1,2위를 비롯한 상위의 설비업체들도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나 설비업체들이 재기를 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재기에 성공한 업체는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원·하도급자 간에 양극화가 가장 심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번 건산법 개정은 양극화의 폭을 좁히고 상생의 기회로 전환되는 법으로 개정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설비공사 분리발주 등 발주방식의 개선과 발주자의 선택이 다양화 되는 제도로 바뀌어야 합니다.

종합적인 기획·관리 및 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공사에 대한 전문건설업자간 공동도급 허용

전문업자간 공동도급은 신규공사를 공동도급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난방의 노후배관을 교체할 때 파이프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천장을 약간 뜯어내야 하는데 그것이 설비와 천장등 내부수리, 즉 2가지 공정이라 해서 복합공사로 보아 일반건설업자에게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인 기획·관리 및 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2~3개 공종이 복합된 단순 개보수 공사에는 전문간 공동도급으로 발주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지역난방공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지역난방공사가 관로공사를 하기 위해 터파기를 위한 토공이 필요합니다. 터를 파고 난 다음 파이프를 배관하는데 이것도 역시 설비와 토공, 2개 이상 공정이라 하여 일반건설업자에게 발주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난방공사 감독관이 감독을 하다 보니 일반건설회사가 공사를 따서 20% 정도 떼고 설비업체에 몽땅 넘겨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난방공사에서는 소규모 공사는 설비업체에 직접 발주하여 보기로 했고, 10억 미만 공사는 직접 발주했

본 회

습니다. 그랬더니 일반건설업체에 발주했을 때보다 일도 잘되고, 말도 잘듣고, 품질도 좋아지고 아무런 장애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지역난방공사는 20억, 30억 단계를 높여서 발주를 했고, 지금은 50~60억짜리 공사도 분리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된 공정에 부대공사로 묶어서 분리발주를 한다면 경비도 절감되고 품질도 좋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종합적인 계획관리가 필요치 않은 공사는 전문업자에게 공동도급토록 하여 주십시오.

시공참여자제도 폐지는 시기상조

시참자제도의 근본 목적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언론에서 다단계의 한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희 협회에서도 '시참자는 생산성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꼭 존치해야 한다' 는 여론과 '시참자가 존치되면 일반건설업자들이 악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검토해 봐야 한다' 는 여론 등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요즘같이 더운 때 슬라브 판 위에 올라가면 50, 60도 정도로 기온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힘든 건설현장에서 성과급제나 시참자 제도를 활용하지 않으면 생산이 어렵게 됩니다. 저희 업계에서도 시참자를 계륵같은 존재라고 합니다만, 아직 폐지할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참자 제도는 생산성 저하, 인건비 상승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존폐 여부를 거론했으면 좋겠습니다.

□ 강석대 서울특별시회 회장

설비공사 분리발주가 확대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필요

건설산업이 태동된 50년 전에는 설비라는 용어 자체가 없었습니다.

부잣집에만 수도가 있는 것이 설비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건축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되어 인텔리전트빌딩의 경우, 전체 공정의 약 40%를 차지하는 아주 중대한 위치에 와있습니다. 특히 첨단산업에 들어가는 반도체나 LCD 같은 설비에는 전체 공정의 약 70%를 차지하는 아주 핵심적인 공사가 바로 설비입니다.

30년 전만해도 설비공사는 종합건설회사가 설비에 대한 기술력을 보유하여 전문업체를 기술관리 해주면서 공사를 진행시켜 왔습니다.

90년대 초반부터 현장 시공도면과 공정관리, 품질관리에 대한 설비를 모든 시공기술을 전문업체에 맡겨 일반건설사가 시행해 오던 기술 및 모든 관리를 저희 설비업체가 해오고 있습니다.

사실 30년 전만 해도 저희 설비업체는 기술 및 관리능력이 너무 취약해서 일반건설사에서 통합관리해주며 공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건설사들의 인원은 계속 늘어나고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일반 건설사들은 자체 인원을 줄이는 대신 전문업체에게 기술력 및 관리능력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전문업체는 공사비 원가가 상승하여 크게 어려워지는 대신 일반건설사들은 기술비용 및 일반관리비용을 대폭 줄여서 많은 이익을 창출시키는 현상이 되어 왔습니다.

장관님이 알기 쉽게 한 현장의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모 LCD 현장에 피크 때 건축, 토목, 설비, 전기 해서 1일 출역인원이 만명 정도 동원됐습니다. 이중 7천명의 기능공이 설비공사 약 16개 공종에 투입된 인원이고 나머지 약 3천명이 25개 전문분야 업종에 투입된 인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전체 공정의 약 70%가 설비공사인데, 이 것은 설비공사의 중요성이 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 회

현장에서 약 7천명을 관리하는데 건설사 측에서 투입된 인원은 10명이고 전문업체에서 관리자로 투입된 인원은 240명 정도였습니다. 설비전문업체는 7천명을 관리하는데 240명이 투입되어 관리하여 1인당 약 29명을 관리하고, 일반은 7천명에 10명이 투입되니 1인당 700명을 관리하는 것을 상상하여 보십시오.

이렇게 오랜 세월을 거쳐 기술력과 관리능력을 갖춰온 설비업체가 일반건설사에서 독립되어야 할 시점에 일반·전문 겸업제한 폐지란 참으로 가혹한 제도변화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협회는 설비전문업체가 5,500개회사입니다. 일반·전문간 겸업제한이 폐지되면 일반건설업체가 13,000개사로 봤을 때 저희 면허는 약 2만개 가까이 되어서 설비업계는 너무도 비참한 혈투장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설비업을 등록한 일반건설사는 복합공사에 포함된 설비공사를 원도급으로 수주하면서 설비공사의 하도급시장도 침범하여 저가하도급을 유발하고, 수주 후 위장직영 등으로 설비시장을 무질서와 불법이 판을 치는 혼돈의 시장으로 변화시킬 것 같습니다.

혼탁한 시장에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 결국 성실하게 설비만을 수주하여 직영하는 기술력 있는 전문업체는 사라지고 저가로 공사를 수주하여 위장직영 불법하도급을 주는 업체만 이 시장에서 살아남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설비업계에 어떠한 대안도 없이 겸업제한을 폐지한다면 30년 전 건설업을 시작하던 청부업자 시절로 되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겸업제한 폐지시 설비전문업체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일반건설사와 동등하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는 제도 뿐입니다.

설비공사 분리발주를 건산법에 명시하시고, 복합공사의 전문건설업자 간의 공동도급을 허용하여 설비업계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설비공사 분리발주는 행정쇄신위원회,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 특별위원회에서도 그 장점을 인정하여 제도개선을 관계기관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건교부 산하 주택공사, 토지공사는 물론 정보통신부, 교육부, KT에서도 설비공사는 건축공사에서 분리발주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관에서 설비공사 분리발주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분리발주된 시장에서 그 장점이 입증된 설비공사 분리발주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하여 주시기를 장관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승일 명예회장

설비공사 분리발주 제도화는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

어젯밤, 장관님을 만난다고 생각하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66년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이 업계에 들어와 40년이 지났습니다.

76년 단종면허가 신설되기 전인 10년간 무면허시절을 겪었습니다. 그 때 일을 배우고 76년 면허가 나와 젊은 나이에 제도권으로 들어가서 명함도 만들고, 정부에서 인정하는 면허 업체로서 출석부 명단에 제 이름이 올라와서 기분 좋았던 감회가 지금도 새롭습니다.

처음에 설비는 20개 공정 중 하나로 단종협의회라는 건설협회 산하 기구로 출발했습니다. 단종협의회에 들어가보니, 작은 회원사를 보호해 주어야 하나 협의회가 그렇지 못해 잘못되었다는 생각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협의회 시절을 13년이나 지난 후에야 전문업계는 건설협회 단종협의회에서 전문건설협회로 독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설비도 그로부터 4년 후에 전문협회에서 독립하여 89년도에 대한설비공사협회를 설립하였고, 지금 17년이 지났습니다.

본 회

건설관리에 대해 무지했던 상황에서 핍박받고 착취당하는 시절이면서 한편으로는 건설관리에 대해 훈련받던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교육기간을 거치면서 기계설비에 대한전문적인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해 89년 독립했던 것입니다.

우리협회가 독립된 후 17년 동안, 건교부 산하에서는 제일 작은 협회이지만 건강하고 착실하게 운영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단종 협의회 때 190여개사가 5천5백개사가 되었고, 총 기성도 10조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기술적으로나 재정적으로는 물론이고 건설행정과 건설관리 전반에 걸쳐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이제 독자적인 우리들의 세계를 마련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협회는 독립되어 있지만 면허체계는 아직도 전문에 속해 있어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처음 단종에서 시작할 때 미장방수나 설비나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사회적인 수준이 열악했기 때문에 제도권으로 넣는 과정에서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었어도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그 때가 바로 첫 잘못이었습니다.

단종에 들어갔을 때의 첫 잘못을 이번 건산법 개정시 바로 잡아야겠다는 것이 우리들의 꿈이었습니다.

설비분야는 건산법 안에, 건교부 안에서 분리발주 받을 수 있고 독립법을 꾸려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희에게 맞는 옷을 입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단순히 겸업제한만 폐지된다면 이나마 성장한 것도 와르르 무너지는, 몇 십년 전으로 되돌아 가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니, 우리 업계가 거의 와해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넓은 시각으로 볼 때 건산법 개정도 결국 우리나라 건설산업이 선진화 되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저는 건설산업 전체가 어떻게 발전해야 할 것인가, 그런 면에서 우리 설비는 어느 쪽으로 가고 있고, 어디 쯤에 서 있는가를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계설비가 분리발주해서 독립세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원 · 하도급이라는 구도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겸업제한 폐지를 한다는 것은, 축구장에 사이즈 똑같고 골대 똑같다고 해서 국가대표 선수와 조기축구회를 붙여 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과연 공정한 게임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부도덕한 얘기입니다.

반대로 설비업계가 분리된다면 수혜자는 국민이나 정부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비건설협회 중심으로 이루어가고 있는, 그래서 조금씩 발전해 가고 있는 설비업계보다는 일반과 전문을 구분없이 겸업제한을 폐지하는 것이 우리나라 건설산업 발전에 문제없다, 오히려 더 낫다고 하는 발상은 안됩니다.

저희 업계의 애로사항 보다도 우리나라 업계를 선진화시키는 측면에서 다루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객관적으로 제가 설비를 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건설산업을 발전시킨다는 면에서 설비를 어떤 방향으로 어떤 성장을 시키고 어떤 그릇에 담는 것이 우리나라 건설산업을 선진화 시킬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보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건산법 개정은 발주자 측면에서, 그리고 설비업계의 육성차원을 고려하여 설비분야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조기호 부회장

설비공사 분리발주 활성화를 위한 제도 필요

겸업제한이 폐지되면 기계설비는 물론 기계설비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엄청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회

장관님을 비롯하여 건교부에서는 앞서 말씀하신 회장님들의 의견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랜 세월을 건설산업 분야에 종사한 한 사람으로서 상생과 시장경제를 왜곡시키는 현 한국건설산업 현주소를 지적한, 건설산업연구원의 이상호 박사의 저서인 '한국건설 미래창조' 라는 글에서 오늘 간담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발췌해 올리겠습니다.

그 글 중에는 왜 한국건설산업 선진화가 필요한가 하는 테마가 나옵니다.

「특히 지금 한국의 건설산업에 대한 국민적 이미지는 대단히 부정적이다. 그렇다고 해서 내버려둘 것인가? 부실과 부패를 내버려두고 후진적인 건설제도와 관행을 방치하게 되면 그 피해는 건설업자에게만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게 되돌아오기 마련이다.

만약 건설산업이 선진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로 총건설투자비 10%만 절감한다 해도 연간 수조원에 달하는 예산절감이 가능할 것이다.」

… 중략 …

「건설산업 선진화가 무슨 국가적인 과제가 될 수 있냐고 할 수도 있겠다. 교과서를 보지 말고 한국현실을 보자. 말도 많지만 행정복합도시, 공공기관 지방 이전, 기업도시 건설, 신도시 건설 등 수년 내에 가시화될 초대형 건설산업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건수가 기다리고 있다.

건설시장의 수요도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양에서 질로 바뀌었다. 주택이나 SOC 시설물이 실질적인 고도화, 첨단화, 유비쿼터스화가 요구된다.」

… 중략 …

「시설물에 대한 수요가 양에서 질로 바뀌면서 양질의 시설물을 공급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정부다. 건설시장의 환경변화나 수요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야 할 인센티브가 별로 없다.

그러다 보니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남이야 제도혁신을 하든 말든 새로운 발주방식을 얼마나 활용하건 말건 별로 관심이 없다. 국내 언론이나 정치권, 특히 요즘은 시민단체에서 떠드는 문제에 대해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더 많은 힘을 소진하고 있는 것 같다.」

… 중략 …

「한국건설산업 법 제도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여야 한다.

건설제도의 글로벌 스탠다드는 전 세계적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증명된 법제도를 말한다.」

… 중략 …

「최고의 가치 베스트 벨류를 하기 위해서는 업종별 특성에 근간을 두고(저희로 말하면 기계설비공업이 되겠지요) 상생에 근거하는 시장경제에 맞게 정당한 댓가를 주고받을 수 있는 투명하고 기술발전적인 건설산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도를 만들고 강력하고 유연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건설산업의 선진화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기본을 두고 업종별 특성을 근본으로 시장경제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설비공사는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건설산업의 한 축을 이뤄 글로벌 스탠다드의 기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에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 최기원 윤리위원

건설산업산업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한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부 장관님!

그리고 모든 건설업계를 한차원 높게 화합 발전시키는 건설선진화본부장님, 언제나 포럼 때 작은 소리로 경청해 주신 손태락 경제팀장님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회

그간 1박2일간의 긴 토론까지 가졌습니다만 이번 법개정 내용을 보고 가져가면서 의견을 조정하고 공청회까지 거쳤습니다만, 왠지 한편으로 허전함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대학에 들어갈 때에는 공과대학에서 가장 점수가 높은 학과가 기계공학과였고, 학문적으로는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중 한 분야로서 자부심도 있었으며, 회사에 입사해서는 토목부, 건축부, 기계부, 전기부 중 하나인 4대부 중 하나이고 건축 4대 전공정으로 한 축을 형성했지만, 코오롱건설을 끝으로 창업한지 11년째인 지금은, "에너지와 밀접하고 그와 관련된 에너지 소요계산과 양을 조정하는 중요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건축전문공종 중 1개로 취급을 받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현재의 하도급과정은 그간 정부의 노력과 정책으로 많은 발전과 보완으로 개선되어 협력업체라고 불리고, 일부이긴 하나 분리발주도 시행되어 그 양은 적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면 기업을 유지할 수는 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항상 적정가가 아닌 최저가를 요구하는 현 일반업계의 정책에 순응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은 엄두도 못 내고 그저 유지한다는 정도이며, 11년 된 저나 30년 된 선배나 같을 수밖에 없으며, 2세에게 넘겨줄 사업이라 생각할 엄두도 못 낼 정도로 내대에서 끝내고 싶을 정도로 열악합니다.

이후를 생각해보면, 그나마 분리발주되는 일부공사조차 일반업계의 기계설비면허 취득으로 경쟁은 2배, 3배로 확대되고 이는 더욱 수주환경을 악화시켜 생존을 압박할 것은 분명해보입니다. 일반도 참석할 수 있는 만큼 분리발주를 의무화 해주시고, 안되면 활성화라도 해주셔야 예상되는 불안감을 다소나마 진정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하철 역사 내의 냉난방 증진공사 같은 개보수공사가 천정공사 등 내장공사와 연계되어 2~3개 공종이 감이 있다는 이유로 일반업계에게만 발주되던 것을 저희 기계설비업자가 내장업자 등과 공동수주 할 수 있도록 일반업계로만 제한하시지 말도록 건의 드립니다.

지금의 건의사항은 현 기계설비업계는 물론 년간 1,500에서 2,000명이 졸업하는 후배들과 가르치는 교수님들, 저희들을 지켜보는 미래의 업자들인 현 일반업계 속의 기계설비 직원들의 소망일 것입니다.

□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 추병직 건교부장관은 하위법령 개정 시 설비건설업계가 원도급으로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설비는 인체로 표현하면 두뇌나 내장같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설비가 여러 면에서 우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전문분야로서 활동함으로써 받는 제약들에 대해 말씀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인텔리전트빌딩이든 도시 유비쿼터스든 대부분 설비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면서 전기, 전기통신, 소

본 회

방설비 등을 한곳으로 모아, 외국의 벡텔사와 같이 종합건설업체들은 공사의 종합기획, 지휘감독 체제로 가고 나머지 분야는 각 전문분야 업체들이 창의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업역다툼 때문에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그 때 도입된 것이 CM제도인데 CM이 활성화 되면 설비부분이 독자영역을 확충하고 모든 면에서 발주에 불이익도 없어질 것이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건산법을 개정하면서 겸업제한과 시참자 참여제도가 건설산업의 상생협력이나 발전에 저해가 되기 때문에 폐지코자 합니다.

설비분야 등 특정분야에서 볼 때 오히려 소외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설비업계가 오늘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독립된 기계설비업이 신설되어 일반과 같이 대우를 받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체제가 그렇게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건설업도, 설비건설업도 어느 정도 원청참여나 독립된 영역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한제도를 완화하려고 합니다.

설비 쪽에서는 겸업제한이 폐지되면 일반이 설비 쪽으로 와서 활동할 경우 설비업역이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플랜트 공사나 설비를 위주로 발주되는 공사는 원청 참여의 기회가 더 확대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설비도 넓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토목하는 사람이 어떻게 설비에 참여 할 수 있겠습니까?

설비가 전문성과 기술력을 보다 더 많이 보유하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공관행에서 볼 때 시참자 제도를 폐지할 경우 그 자체만으로도 당분간 공사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시공참여자, 기타 다단계 하도급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해 여러 가지 인력문제와 마찰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해야 합니다.

시참자 제도를 폐지한다 해도 성과급제도나 혹은 전문건설업체가 그들이 거느리고 있는 인력에 대해 임시고용형태로 가져간다면 큰 마찰 없이 다단계 하도급 위험도 방지할 수 있고, 공사도 수행할 수 있다고 봐서 시참자 제도 폐지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 분리발주 문제는 과거부터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한 현장에 건축공사, 토목공사, 설비를 주로하는 플랜트공사 등 다 다릅니다.

건물 하나 짓더라도 전기공사, 전기통신공사, 소방공사 등에 공사감리가 각 분야별로 따로 와서 하다보니 실제로 종합적인 공사집행, 감독 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분리발주를 확대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공사 특성상 설비가 주가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위법령 제 · 개정시 그 정신을 살려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설비분야는 일반건설업과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갖게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설비가 원청으로 참여할 수 있다면 오히려 이 기회가 설비발전의 계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까 건의하신 내용은 실무진에서 잘 들었으니까 전반적으로 건설산업발전과 함께 기계설비 발전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법 개정이 '상생' 이라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개선에 녹아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 회

□ 박종학 회장

노후배관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제도로도 분리발주 할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에 단서조항으로 '다만, '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그 것 가지고 KT, 지역난방공사, 교육청 등 공공기업과 공공기관에서 분리발주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공기업에서 분리발주 하기를 꺼려합니다. 또 상대적으로 회사에서 기계직이 약해서 위에 건의를 못하는데 오늘 단서조항을 명확하게 이야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서종대 건설선진화본부장

그건 제가 포럼에 한번 올려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재경부하고 협조해서 공문으로 보내면 됩니다.

산하투자기관이나 발주기관에 '이러한 공사는 사실상 단종공사임에도 불구하고 복합발주가 많은데 전체적인 발주금액이나 공사 내용으로 보아 이러이러 하다면 가급적이면 전문공사로 발주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문 보내면 됩니다.

아무튼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정승일 명예회장

'하자구분이 명확하고 공정 구분이 정확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단서조항이 통합발주 의무조문에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공사는 통합발주 안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기계설비 때문에 이러한 조항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 부분이 애매합니다. '기계설비' 란 단어가 들어갔으면 분리발주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 서종대 건설선진화본부장

기계설비 뿐만 아니라 상하수도도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 박종학 회장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설비업계의 의견을 들어 주신 장관님과 건교부 여러분께 매우 감사드립니다.

우리 설비건설업계는 앞으로도 건설산업이 좀더 발전될 수 있도록 일선에서 혼신의 힘을 쏟겠습니다.

장관님을 비롯하여 건교부 여러분께서는 업계가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함께 진정한 상생을 위한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

설비건설업계 원로 간담회 및 건산법 개정 간담회 개최

▶ 8월 2일 개최된 설비건설업계 원로 간담회

□ 설비건설업계 원로 간담회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박종학)가 건설산업기본법 입법예고(안)에 따른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8월 2일 원로 간담회에 이어 지난 8월 14일 건산법 개정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라마다 르네상스 인 서울에서 개최된 원로 간담회에는 박종학 회장을 비롯하여 홍평우 명예회장, 정승일 명예회장, 김종서 전임 감사, 강석대 서울특별시회 회장, 조기호 부회장, 최기원 윤리위원, 최동호 상임부회장, 김경회 상임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종학 회장은 건산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겸업제한 폐지시 예상되는 설비건설업계의 시장분석, 건산법 개정과 관련한 협회의 대응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홍평우 명예회장과 정승일 명예회장은 겸업제한 폐지시 설비건설업역이 해체될 우려에 대한 위기감을 표명하고 협회 차원에서 겸업제한 폐지를 적극 반대할 것과 폐지할 경우 분리발주 개선을 주장했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이날 회의에서 토출된 의견들을 수렴하여 건교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본 회

□ 건산법 개정관련 간담회

또한 지난 8월 14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건산법 개정관련 간담회에는 박종학 회장을 비롯하여 강석대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광남 감사, 우광헌 이사, 임종태 서울특별시회 부회장, 최기원 서울특별시회 운영위원, 최동호 상임부회장, 김경회 상임이사, 조현일 정책지원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수정건의안을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종학 회장은 "우리 협회는 정부의 겸업제한 폐지를 반대하지만 정부의 의지대로 폐지할 경우 분리발주, 전문간 공동도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종학 회장은 또 "금년도 해외실적 105억불 중 73억불이 설비"라며 "이러한 설비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우리 협회가 설비공사 분리발주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건산법에 입법예고된 사항을 협회 차원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토출된 내용은 건교부에 건의하기로 협의했다.

□ 부산지역 설비건설업계 의견 수렴

한편 박종학 회장은 지난 8월 7일 부산광역시회를 방문, 김광환 부산광역시회 회장을 비롯하여 박종갑 부회장, 이한수 대구광역시회 회장, 김재홍 울산 · 경남도회장 등 부산, 대구, 울산 · 경남지역 회원사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건산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부산 · 경남지역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본 회

건설공사에서 건강보험료 소급추징 유예 건의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박종학)는 지난 8월 1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사수주시 건설공사내역서에 보험료가 미반영된 경우 소급추징 대상에서 제외하여 줄 것'과 '납입보험료 에 대한 정산제도가 건설현장에 정착되는 시점을 감안하여 건강보험료 소급추징을 유예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이 건의문에 따르면 정부가 2003년 7월부터 1개월 이상 건설일용근로자도 건강보험에 의무가입토록 하였고, 건설교통부에서는 보험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사내역서에 명시토록 하고 그 비율을 고시하였지만, 공공공사인 경우 소요비용의 절반(건강보험 56%) 정도만 반영하였는데 그나마 최저가낙찰제 등으로 극히 일부분만 반영 받고 있는 실정이며, 더구나 전체 공사의 70%를 차지하는 민간발주공사인 경우 보험료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어 보험가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한설비건설협회는 보험료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관계부처에 끊임없이 건의한 결과 건설교통부에서는 납입보험료 정산제도 및 보험료 미반영시 원도급자 처벌조항 등을 입법예고 중에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이 건설사업주에게 「사업장 지도점검」 공문을 발송하여 미납입보험료를 소급추징(3년)함에 따라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건설공사 특성을 감안하여 보험료 원가반영 의무화 및 정산제도가 건설현장에 정착되는 시점(2008년 추정)까지 「사업장 지도점검」을 유예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본 회

대한설비건설협회
Korea Mech. Const. Contractors Association

135-951 서울시 강남구 청담2동 45-1 설비건설회관 5층 / 전화 : 6240-1131 / 전송 : 6240-1114

문서번호 설비협기술2006-208호

시행일자 2006. 7. 14.

받 음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참 조

http://www.kmcca.or.kr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공람		
	번호				
처리과					
담당자					

제 목 건설공사에서 건강보험료 소급추징 유예 건의

1. 국민복지 증진과 선진복지사회 구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장관님(이사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정부에서는 2003년 7월부터 1개월이상 건설일용근로자도 건강보험에 의무가입토록 하였으며, 건설업은 제조업과 달리 원가계산에 의한 수주산업이기 때문에 2006년 건설교통부는 보험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사내역서에 명시토록 하고 그 비율을 고시하였습니다.

3. 그러나 공공공사에서도 소요비용의 절반(건강보험 56%)정도만 적용하였으며 그나마 최저가낙찰제로 최종수급자인 설비건설사업주는 극히 일부분만 반영 받고 있으며 또한 전체공사의 70%를 차지하는 민간발주공사는 보험료를 전혀 반영하지 않아 보험가입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4. 이러한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정부에서는 납입보험료 정산제도 및 보험료 미반영시 원도급자 처벌조항 등을 입법예고 중에 있으나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설사업주에게 「사업장 지도점검」 공문을 발송하여 미납입보험료를 소급추징 (3년)하고 있어 우리협회 회원사로부터 항의가 폭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 이에 우리협회는 공사수주시 건설공사내역서에 보험료가 미반영된 경우 건설공사 특성을 감안하시어 소급추징 대상에서 제외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납입보험료 원가반영 의무화 및 정산제도가 건설현장에 정착될 시점(2008년 추정)까지 「사업장 지도점검」을 유예하여 주시기를 건의 드리오니 적극 검토하시어 산하공단을 지도 · 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 박 종 학

본회 및 각 시 · 도회

설비건설업계 수재의연금 기탁

대한설비건설협회 본회를 비롯한 서울특별시회, 부산광역시회, 울산 · 경남도회, 대전 · 충남도회, 강원도회, 충북도회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로 수재민들이 많아짐에 따라 피해복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재의연금을 기탁했다.

각 시 · 도회의 수재의연금 기탁 현황은 다음과 같다.

□ 본회 및 각 시 · 도회 수재의연금 기탁 현황

시 · 도회	회장	일자	기탁처	금액(원)
본회	박종학	8월 23일	한국방송공사	10,682,110
서울특별시회	강석대	8월 11일	한국방송공사	5,000,000
부산광역시회	김광환	8월 4일	한국방송공사 부산방송총국	4,000,000
대전 · 충남도회	성열구	9월 11일	한국방송공사	1,000,000
울산 · 경남도회	김재홍	8월 11일	한국방송공사 울산방송총국	2,000,000
강원도회	강현우	7월 28일	강원일보 도민일보	2,000,000
충북도회	장순경	8월 4일	CJB 청주방송국	3,000,000

서울특별시회

제179차 운영위원회 개최

서울특별시회(회장 강석대)는 지난 8월 24일 설비건설회관 회의실에서 제179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8월 업무추진실적과 9월 업무추진계획이 보고되었고, 9월 업무추진계획은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또한 부의사항으로 상정된 총회 개최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 8월 업무추진실적

△2006년도 시공능력평가 공시 및 수첩 기재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입법예고에 따른 업무보고
△회장단회의 개최
△산학협력 간담회 개최
△수재민돕기 성금 전달
△회원사 임 · 직원 직무교육(건축설비CAD 및 적산실무) 추진
△건설업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 시행
△2006년도 하반기 장학금 지급
△2006년도 시공능력 회원사 순위표 제작 · 배포
△회원사 신청서류 발급업무 실시
△회원사 업무안내 공문 시행

□ 9월 업무추진계획

△제30회 총회(임시)관련 업무추진 및 개최
△2006년도 제3차 시공품질 현장점검 실시
△「건설계약관계법령집」 제작 · 배포

서울특별시회

산학협력 간담회 개최

서울특별시회(회장 강석대)가 지난 8월 7일 협회 회의실에서 산학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석대 회장을 비롯하여 서광문 서울특별시회 부회장, 은근수 서울특별시회 감사, 우영삼 서울특별시회 경영지원 사무처장, 조현일 본회 정책지원실장, 안구근 서울특별시회 실장 등이 업계측 대표로 참석하였고 서광수 경원대학교 교수, 서기원 대림대학 교수, 김영중 두원공대 교수, 김동우 수원과학대학 교수 등이 학교측 대표로 참석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강석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업계와 학계는 상호 협력을 통해 공동 발전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글로벌화 시대에 시대적 흐름을 빨리 파악하고 업계와 학계가 다같이 고민하여 대응책을 마련할 때 상호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광수 교수를 비롯한 교수진들도 강석대 회장의 제안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앞으로도 업계와 학계가 공동발전의 길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서울특별시회

2006년도 하반기 장학금 지급

▶ 지난 3월 10일 서울특별시회 제29회 정기총회에서 강석대 회장이 수도권 5개 대학 장학생들에게 상반기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서울특별시회(회장 강석대)는 지난 8월 25일 경원전문대학을 비롯한 수도권지역의 설비관련 대학에 2006년 하반기 장학금 1,360만원을 지급했다.

이번 서울특별시회의 장학금은 경원전문대학을 비롯하여 대림대, 두원공과대, 수원과학대, 유한대학에 장학금이 지급되었다.

이같은 서울특별시회의 장학금 지원으로 경원전문대학 조영훈 학생 외 15명의 학생이 장학 혜택을 입게 되었다.

한편 서울특별시회는 지난 1994년부터 산학협력의 일환으로 미래의 설비건설인력 양성에 기여하기 위해 수도권 설비관련 대학을 대상으로 총 599명에게 317,400,000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대구광역시회

'지역건설업계 활성화 간담회' 서 설비공사 분리발주 시행 건의

대구광역시회(회장 이한수)는 지난 7월 28일 '지역건설업계 활성화 간담회'에서 대구광역시에 설비공사 분리발주 시행을 적극 건의했다.

대구광역시 김세곤 건설방재국장, 하점수 건설산업진흥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이한수 회장은 지역 설비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대구광역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설비공사는 건축공사와 분리, 발주하여 시행하고 분리발주 시에는 49% 이상을 지역의무공동도급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이한수 회장은 또 "지역 내에서 발주되는 민간공사의 최소 50% 이상은 대구지역 설비건설업자에게 하도급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가 적극 나서서 행정지도 등을 한층 강화하여 줄 것"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최근 일반건설업체의 하도급 최저가 경쟁입찰 유도에 따른 저가하도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구광역시가 덤핑입찰 방지를 위한 건전한 건설환경풍토 조성에 앞장서 줄 것"을 촉구했다.

대구광역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건의된 이한수 회장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지역업체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충북도회

시공품질 현장점검 실시

▶ 시공품질점검위원들이 코오롱종합설비(주)가 시공중인 목령초등학교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 (주)한솔엔지니어링이 시공중인 청주시 신동아아파트 시공현장

충북도회(회장 장순경) 시공품질점검위원회(위원장 김성배)는 지난 5월 12일 2006년도 제2차 시공품질 현장점검을, 8월 1일에는 제3, 4차 시공품질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제2차 시공품질 현장점검에는 미성설비산업(주)(대표 박문현)가 시공 중인 각리중학교를, 3차 현장점검에 (주)한솔엔지니어링(대표 김종묵)이 시공 중인 청주시 신동아 아파트를, 4차 현장점검에는 코오롱종합설비(주)(대표 민병헌)가 시공 중인 목령초등학교 설비공사 현장을 점검했다.

충북 청원군 오창면에 소재한 각리중학교 교사 신축 기계설비공사는 청원군 교육청이 분리발주한 것으로 총 3억9천3백만원의 공사규모이다. 지난 2005년 10월 공사를 시작하여 8월 말경 완공 예정

충북도회

▶ 미성설비산업이 시공중인 각리중학교 시공현장을 점검하고 있는 시공품질점검위원회 위원들

인 이 현장은 지난 5월 12일 현재 약 8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목령초등학교 교사 신축 기계설비공사는 총 3억5천만원의 공사규모로 2005년 10월 공사를 시작하여 8월 말 완공 예정으로 지난 8월 1일 현재 약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청주시 사천동 신동아 아파트 개별난방전환공사는 민간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제한 규정을 적용하고 최저가가 아닌 적정가 낙찰방식으로 입찰을 집행, 총 5억7천7백만원 규모의 가스시설시공업(1종) 공사이다. 이 같은 결과는 충북도회가 그 동안 지역제한 및 적정가 낙찰방식에 대한 끊임없는 의견개진과 홍보에 대한 노력의 결과이다.

신동아 아파트 공사현장은 지난 3월 공사를 시작하여 8월 말 완공예정으로 지난 8월 1일 현재 약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시공품질 현장점검에 나선 김성배 위원장[(주)세연플렌트 대표]과 이송우 위원[백만건설(주) 대표], 정두순 위원[(주)에스케이엔지니어링 대표]은 공사현장의 일반사항, 공정관리, 시공관리,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상태를 세밀하게 점검하고 시공상태도 꼼꼼하게 체크함으로써 부실시공을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공사의 품질을 한단계 더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시공품질 점검위원회는 현장점검 후 위원별 평가회의를 통한 현장점검 결과를 해당 회원사는 물론 분리발주를 수주한 회원사에게도 보냄으로써 충북도내 각 현장이 견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독려함은 물론 설비건설업계의 업역확대 및 권익옹호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청주교육청과 청원교육청 등에서 분리발주된 공사를 수주한 여러 회원사들도 시공품질 현장점검의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시공품질 향상을 위해 현장점검 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 이에 따라 충북도회는 신청된 현장별로 계획표를 작성, 시공품질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충북도회는 회원사들의 시공현장에 대한 품질향상과 견실시공 유도를 위해 지난 3월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시공품질점검위원회를 구성키로 함에 따라 서울특별시회에 이어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충북도회가 지난 1월 22일 1차 점검을 실시하자 여러 발주관서들이 벤치마킹에 들어갔고 회원사는 물론 발주관서, 종합건설업체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충북도회

지규원 부회장, 청주기계공고 특강

충북도회(회장 장순경) 지규원 부회장[(주)태원플렌트 대표]이 지난 7월 13일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기계설비과 3학년 70여명의 학생들에게 '설비건설업계 및 향후 비전'에 대한 특별강의를 실시 했다.

산학협동의 일환으로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측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날 특강에서 지규원 부회장은 학생들에게 설비건설업계의 현실 및 향후 비전 등을 제시하고 "자신의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위해 열정을 바친다면 개인의 발전은 물론 자신이 몸담을 설비건설업계도 더욱 발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여 훌륭한 설비건설인이 되어 줄 것"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대한설비건설협회와 충북도회의 활동상황 등을 간략하게 소개했다.

지규원 부회장은 지난 97년 기계설비공사업 전문면허를 취득한 후 한국교원대학교와 충북대학교, 청원군청 및 군부대 등에서 발주한 계설비공사를 성실시공과 견실시공으로 수행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함은 물론 유·청소년 축구지도 등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도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고 있다.

한편 충북도회는 지난 3월 정기총회에서 지역 내 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설비관련 학과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키로 의결한 바 있으며, 지난 6월 8일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에 2백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충북도내 약 120여 회원사에는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성실하고 모범적인 직원들이 거의 한두 명씩 근무하고 있어 산학협동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